

바흐 “올림픽 연기 포함 세부적 논의 4주내 마무리”

IOC·아베 올림픽 연기 첫 공식 언급

“취소는 의제 아냐” 선 그어
다음달 최종 결론 나올 듯
반대 여론에 한발 물러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2일(현지시간) 긴급 집행위원회를 진행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IOC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 당국, 도쿄도와 협력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적인 보건 상황과 올림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IOC는 앞으로 4주 안에 해당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 20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으나, IOC가 ‘연기 논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도 23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

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겠다고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 관련) 판단은 IOC가 내리지만, 중지(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는 점은 IO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언급한 ‘안전한 형태’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관객도 함께 감동을 맛보게 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내 생각에 대해 어젯밤 조직위원회 모리 회장에게도 이야기했고, 모리 회장이 바흐 IOC 회장에게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앞으로 IOC와도 협의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G7(주요 7개국) 정상들도 내 판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IOC가 연기 검토를 포함한 논의를 4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4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OC와 아베 총리가 모두 취소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규모 축소, 정상 개최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BBC 방송과 일간지 가디언은 규모 축소보다는 몇 달 또는 1년 연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연기 연세가 좋을까

2020년 (기존 개최 일정: 2020.7.24~8.9)

7월 1. 몇 달 연기
예상되는 문제점
· 일본 열도에 태풍 발생 잦음
· 코로나19 확산 지속 가능성 있음

9월 2. 1년 연기
· 7월 16~8월 1일 (일본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 8월 7~16일 (미국 오리건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 수영·육상 선수 일정 조정 필요
→ 1년 연기로 경기장 대관 및 선수촌 아파트 입주·보양 문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상

프로배구 V리그도 사상 첫 조기 종료

임시 이사회 열고 결정

한국배구연맹(KOVO)이 2019-2020 V리그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가 정규리그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종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이 컸다.

KOVO는 2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서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

단장(1개 구단은 단장 대행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리그 종료와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리그 ‘조기 종료’였다.

나흘 전인 19일에도 KOVO는 이사회를 열었지만, 리그 종료와 재개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3일 이사회를 시작하며 조원태 KOVO 총재는 “오늘은 결론을 내리자”라고 요청했고, 각 구단 단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남녀 프로배구 리그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장도 동의했다. 2시간 30분여의 격론 끝에 코로나19 위협으로 리그를 재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결규리그 최종 순위는 남녀 팀들의 경기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5라운드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자부는 우리카드, 여자부는 현대건설이 1위로 사실상 확정됐다.

캐나다 “코로나19 진정되기 전엔 올림픽 불참”

대한체육회, 최종 결정 나기까지 선수촌 관리 집중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양인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관리에 집중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종목 협회·연맹의 빗발치는 비판을 수용해 도쿄올림픽 연기를 비롯해 각종 세부 사안을 4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2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도 IOC가 도쿄올림픽 강행 의사를 고수하자 전 세계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IOC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단했던 ‘봉인’이 해제되자 캐나다올림픽위원회와 호주올림픽위원회가 즉각 반응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엔 올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NOC 중 처음으로 선언했다. 올해 안에 올림픽이 열리진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호주도 자국 선수들에게 내년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하라며 사실상 1년 연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대한체육회는 IOC의 최종 방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질 만큼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훈련 집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수촌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이던 1월 28일 진천선수촌 입구에 열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로지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구슬땀을 흘려 온 선수와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순간,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감염증 원천봉쇄에 집중했다.

외출과 외박도 필요 인원에게만 허락하다가 최근 선수촌에서 가까운 충북 음성 대소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마저도 전면 통제했다.

체육회와 문체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IOC의 올림픽 연기 관련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수촌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 마련에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수영 한국신 포상금 준다

수영연맹 14년만에 부활

올해부터 수영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선수는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대한수영연맹은 선수들의 동기 부여 및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한국 신기록 수립 포상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맹 주관·주최 국내대회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인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수립될 때마다 개인 종목 선수에게는 100만원, 단체 종목 팀에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영연맹의 한국 신기록 포상제도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첫 국내대회로 다음 달 30일부터 나흘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 대회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한국 기록 및 세계 신기록상, 아시아 신기록상과 올림픽·세계수영선수권대회·아시아게임 입상 포상금도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메달리스트였던 다이빙 국가대표 김수지(울산시청)는 동메달 획득으로 1000만원의 연맹 포상금을 받았다.

산행안내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30, 조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 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움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4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4일(토) 고흥 북래산 및 옥섬, 봉선동 롯데슈퍼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정문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길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다움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4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4월 12일(일) 용골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정례(300430-XXXXXX)
- 최후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23번길 15

피상속인 망 김정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단53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시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24일
· 상속인: 홍애순(490320-XXXXXX)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9번길 24(군내리)
· 신고기간: 2020. 3. 24. ~ 2020. 6. 2.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홍애순의 주소

해산 및 채권 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0년 3월 16일 임시 주주 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는 공고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주식회사 금강우드메탈
대표이사 박명숙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매정1길 93
청산인 박명숙

중증정기총회 소집공고

삼가 중증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중증의 규약 제6조에 의하여 조상주모 시제행사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 04. 05. (일) 오전 9시
2. 장 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정리 334-1 도선산
3. 회의사항
(1) 감사 및 결산보고
(2) 중증특별재산관리인 선임 등
(3) 기타 제반사항 협의

4. 준 비 물: 도장
5. 연 락 처: 010-4291-8801
2020년 3월 24일
광산김씨계파공파중증 회장 김인중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621-10
2. 분묘구수: 1기
3. 분묘사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장성군 추모공원(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6. 안치기간: 5년
7. 공고기간: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 및 신고처: 나라개발(광주 광산 북문대로 419)
9. 신고방법: 분묘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분묘 개장공고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3월 24일
위 공고인: 김병현(010-6395-1828)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란문의 1544-8855

2관	디크 워터스, 지푸리키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1917, 세인트 아가타
4관	인버저블맨
5관	인버저블맨, 작은 아씨들
9관	정직한 후보
7관	씨네커를 미드나잇 인 파리, 스타 이즈 본
8관	작은 아씨들, 비긴 어게인 지푸리키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 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엠마뉴엘 체코나보라인 바이올린 리시탈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코나보라인 바이올린 리시탈
4.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화양연화: 강남구 초대전

GAC기획전시 화양연화: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